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5)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로마서 8:6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먼저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더불어 영을 따라가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채우며,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are life.)"(요 6:63)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현재완료형으로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 역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읽고 듣고 말할 때 그것이 영의 생각을 불러오는 것이고, 영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먹고 자라고 성숙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르고 영에 속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사랑으로 말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에베소서 4:13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15절에서 말씀하신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사랑으로 진리를 계속적으로 말해줌으로(speaking the truth in love)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말해주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좇는 삶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도록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20-2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you have heard Him and have been taught in Him)"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가 다 현재완료형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있으며, 가르침을 받아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읽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와 영의 양식인 줄 알고 먹고 사랑으로 말하며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였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다(마 11:28).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나,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